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다른 일반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야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81년전 서울 삼각정에서 개업

사실 함석태의 이름을 내가 알게 된 것도 그동안 우리 의학과 특히 치과 의학사를 연구해 온 기창덕(奇昌德)박사의 책을 통해서이다. 기박사는 199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발표했던

하는 대목이다. 이상한 것은 수술이 공짜라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 기박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이미 약간의 훈련을 받은 몇명의 입치사(入齒士)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준치과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함석태는 입치사들은 할 수 없는 구강외과 치료까지 할 수 있음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들 입치사들과 달리 함석태는 일본에서 치의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아 한국

##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咸錫泰(1889~?)

지금부터 81년전,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로 치과의원을 개업한 咸錫泰, 동경서 일본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4년 총독부 치과의사 면허 1호로 등록, 서울 삼각정에서 「함석태치과의원」을 개업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을 지낸후 기록이 끊긴 함석태는 한국 치의학의 개척자로 꼽을 수 있다.

### 朴星來

〈한국외대교수 / 과학사〉

도시라면 어느 동네거나 치과가 없는 곳이 없게 된 지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한국인 의사가 치과의원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81년 전인 1914년이였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초의 치과의사로 치과 의학의 문을 열어 준 사람은 함석태(咸錫泰, 1889~?)였다. 일단 한국 치의학의 아버지로 불러도 좋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1만명이나 된다는 한국의 치과의사들이지만 함석태의

글 등을 모아 이번에 「의학, 치과의학의 선구자들」(아카데미아, 1995)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했는데 함석태의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따로 연구해 놓은 것이 전혀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박사의 글을 중심으로 여기 소개할 수 밖에 없다. 1914년 그는 서울 삼각정에 '함석태치과의원'을 개업했다. 그 개업 안내광고가 바로 기박사의 책에 실려 있다. 이 광고에 의하면 진찰은 매일하며 수술은 무료라는 말이 적혀 있다. 또 재미있는 정보 한가지로 전화번호가 79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1914년 서울의 전화가 전부 몇대나 되었을지를 짐작하게

최초의 치과의사가 되었다. 그가 언제 동경유학을 떠났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데 아마 1909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치과의사가 제대로 독립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치과의사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치과의학교가 생기면서부터의 일이었다. 함석태가 다닌 동경의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07년 2년제로 생겨 1909년에는 3년제로 바뀌었는데 함석태는 말하자면 3년제 때에 입학하여 정식 치과의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 총독부 치과의사 면허 1호

그런데 함석태가 총독부의 치과의사 면허 제1호로 등록된 것은 1914년 2월이었고 그 사실이 그해 3월 11일자 관보에 실려 있다. 동경에서 치과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이 1912년이요 1914년에서야 치과의사로서 등록하고 치과를 개업했으니 그는 2년동안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

한국 치과의사 면허 제1호라는 사실 만으로도 함석태가 한국의 첫 치과의사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에는 이미 치과의사가 몇명이나 있었고 또 버젓이 개업하고 있었다. 일본인 치과의사가 5~6명, 미국인 치과의사 한 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외국인 치과의사의 역사를 더듬어 보자면 그 첫째로는 1893년에 이미 제물포(인천)에서 정식으로 치과를 개업하고 있던 일본인 의사를 들 수 있다. 그는 아직 '전문학교'라는 간판을 달기 전의 일본 치과학교를 졸업한 치과의사로 이름이 야전응치(野田應治)였다. 물론 당시 치과를 찾는 환자란 아주 드문 것이 사실이었다. 아직 이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아침에 소금을 손가락 끝에 찍어 이를 문지르는 것이 고작이던 그런 때였다. 칫솔이나 치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 당시 병원찾는 환자 드물어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가 아픈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를 들고 있고 수많은 약품도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쓰는 말처럼 '충치(蟲齒)'라 하여 마치 이가 벌레 먹는다 하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지금의 치의학 지식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한다.

이 때에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또 서양 사람들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외국인 치과의사가 있었을 뿐이었지 그들이 한국인 치료를 담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함석태는 이런 환경 속에 최초의 한국 치과를 개업하여 몇년동안은 한국 유일의 한국인 치과로 군림할 수가 있었다.

국내에서 개업한 한국 치과의사 제2호는 1919년 역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개업한 김창규(金昌圭)이고, 제3호는 함석태와 같은 동경의 치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1921년에 개업한 이희창(李熙昌)이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한 한국의 치과의사는 1923년까지 모두 12명이 되었다.

###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조직

이런 가운데 1922년 4월에는 한국에도 처음으로 경성치과학교가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도 치과학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28명의 졸업생 가운데 20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들이 졸업하고 한국인 치과의사가 30명을 넘어가는 이 시점은 한국 치의학사에서 큰 전환점이었다고 할만하다. 당연히 1925년 이들은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함석태를 뽑았다.

이들은 처음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구강위생의 계몽을 펼치기 시작했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 이후 특히 한국인 지식층 사이에는 민중의 계몽을 통한 국력 양성이나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치과의사들 역시 이런 당시의 기운에 동참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없이 치과의사들은 할 일을 잃게 될 수 있는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사실은 서양의사들 역시 한국의 치의학 발달에 큰 몫을 해냈다. 특히 1921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부임해 온 미국인 치과의사 부츠(J. L. Boots, 1894

~1983)가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때문이다. 특히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이유경(李有慶, 1907~1987)은 바로 부츠의 조수로 일하다가 1935년 미국에 유학하여 한국 최초의 미국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되었다. 1937년 6월 그는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치과의사 학위(DDS = Doctor of Dental Surgery)를 받고 귀국하여 세브란스 치과에서 일하다가 1943년에 이유경치과를 개업했다.

그 후에도 미국에서 치과교육을 받은 다른 치과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의 한국 치의학은 주로 경성치과전문학교에서 진행되어 1945년까지 이어졌다. 경성치과전문학교는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본인들이 주도한 학교였지만 여기서 교육받은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결국 해방 후 한국 치과대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서울대 치과대학은 그 시작을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에서 찾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 치과대학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에 대해서조차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기창덕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상 소개한 정도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는 어떻게 일본에 가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치과공부를 하려고 결심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1925년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언제 어디서 죽었던 것일까? 그의 후손은 어딘가에 있을텐데 혹시 그 후손조차 자기 조상의 역사적 가치를 모른채 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이런 여러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①7